

讀書教育의 나아갈 方向

盧 命 完

(韓國教育開發院, 國語教育學)

1. 問題의 提起

먼저 다음 글을 읽어보자.

“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화목하게 지낸다.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적게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 친구들이다. 선장은 나를 하찮게 대하여 준다. 우리는 가끔씩 모여 함께 회식도 한다. 내 생각에 우리는 마치 한 가족과 같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어떤 사람은 위에 인용한 글에 아마 아무 저항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읽어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위의 글에는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직급이나 봉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화목하게 회식도 하며 가족같이 지낸다는 내용과 선장이 나를 하찮게 대하여 준다는 내용은 분명히 상치되는 내용이다.

독서는 낱말의 단어나 문장의 이해를 넘어서서 글 전체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필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고도의 知的 행위이다. 이 고도의 지적 행위는 다음 두 가지의 독서 과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글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며, 다른 하나는 독자 자신의 이해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조절이다. 전자는 글에 대한 것이며, 후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전자는 글을 읽고 낱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 자체를 뜻하며, 후자는 글 전체의 내용, 구성, 그리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까지의 이해 여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인식으로서 ‘안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를 뜻한다. 독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의 독서 행위를 認知(cognition)와 超認知(metacognition)라 부르는데, 이 구분은 지혜로운 독자와 그렇지 못한 독자를 구분하는 준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도의 기술·문명 사회로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의 독서 교육의 목표 설정 준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2. 讀書教育의 現住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독서에 관심을 가져왔고, 독서 과정과 독서 교육 연구에 엄청난 정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비를 투자하여 온 많은 서구 국가들이 최근에 들어서서 독서 교육의 위기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독서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학교는 그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가?

최근 미국의 교육 성취에 관한 전국 평가(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보고서에서는 각급 학교의 각 학년에 걸쳐 미국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의미 있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NAEP의 위원장 Archie E. Lapointe는 같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NAEP 자료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을 함께 전해 주고 있다. 기쁜 소식은 대부분의 미국 청소년들이 기초적인 수준의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슬픈 소식은 읽기와 쓰기에서 효과적으로 思考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한 국가 또는 한 사회의 삶에서 요구되는 읽기 및 쓰기 기능의 수준(이를 文識性水準; literacy level 이라고 하자)은 그 국가나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과 병행하여 높아져

는데 미국의 학교 교육은 이 점에서 사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은 전통적 개념으로서의 文盲退治는 이루었지만 현실 사회에 적절히 적응하며 살 수 있는 機能的 文識性(functional literacy)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교육, 좁게는 讀書教育, 그리고 넓게는 學校教育이 危機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독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비판은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조사 연구들은 중학교 입학 학생의 10% 내외가 아직도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문자 해독(decoding)에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 이 통계 수치는 국민 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한 예가 발췌한 것은 기본 음절표의 글자를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국민 학교 1학년에서 25%, 2학년에서 20%나 된다는 서울 지역의 미보고 조사 결과이다. 유네스코에 보고되는 자료에서는 우리 나라 전국민의 97% 이상이 文盲(illiterate)을 벗어나 文識者(literate)에 속한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사실은 노인층이 아닌 현재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 중에서 10% 내외는 아직도 글자 자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오늘날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사회는 국민들의 시민 의식, 정보의 수집·분석·종합, 그리고 이에 기초를 둔 합리적인 판단, 개인적 꿈의 실현과 행복 추구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발현을 더욱 높게 요구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모든 국민들은 고도의 정보·산업화로 치달고 있는 현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신문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 그리고 필자의 숨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의 주장을 펴고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들 수 있어야 하며,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말이나 글로 정확히 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버스 정거장이나 기차 역의 시간표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차를 탈 수 있어야 하고, 약이나 냉장고

를 산 후 거기에 적힌 지시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사회가 요구하는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읽기 능력 또는 文識性이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 중 약 10%는 아직도 글자 자체를 읽지 못하며, 정확한 연구 보고는 없으나, 상당한 비율의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능적 문식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문자에 의한 정보 생활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암흑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가 요구하는 문식성의 수준도 달라진다. 우리는 97%의 문맹 퇴치율만 자랑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文盲의 문제가 아니라 文識性의 문제이다. 우리의 학교는 이같은 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學校 讀書敎育의 問題點

글자를 읽지 못하는 국민 학교 1학년 취학 아동들에게 주는 학교 교육의 첫째는 글자 읽기 지도이다. 학생들은 어휘의 난이도, 글자 구조의 복잡성, 문장의 길이, 문형의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잘 정련된 국어 교과서를 교재로 문자 획득을 시작한다. 이것이 學校 讀書敎育의 시작이다. 그러나 독서 교육은 글자나 단어 또는 문장 읽기 지도에 그쳐서는 안된다. 비록 독서 교육이 낱자 읽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평범한 진리이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독서 교육의 일반 상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범한 진리, 일반적 상식이 독서 교육의 전문 교과라고 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독서 교육이 문자 읽기 지도를 넘어서서 글 읽기 지도가 되어야 하며 글 읽기 지도는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덕 등 모든 교과에서 두루 지도되어야 할 학교 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국어과 교육에 국한하여 독서 교육의 문제점을 교과용 도서로

서의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육 방법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讀書教育 教材로서의 國語教科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讀本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어 교과서의 편찬이나 국어과 교육이 지금까지 말하기, 듣기, 쓰기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읽기 교육 위주로 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어 교과서를 독본으로 부르는 것은 어쩌면 타당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분량을 볼 때, 현재 약 200여 쪽(국민 학교 교과서는 이보다 훨씬 분량이 적음)에 불과한 교과서로 한 학기 독서 교육의 교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서 교육의 첫째는 우선 학생들에게 많은 분량의 글을 읽히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단일 교재이다. 그리고 교과서의 각 단원도 위의 여섯 영역의 내용을 모두 지도하도록 편찬되어 있다. 읽기가 말하기, 듣기, 쓰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知的 행위이고, 문학이나 언어학적 지식이 독해의 배경 지식이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한 단원 또는 글 한 편에서 국어 교육의 모든 것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교과서 편찬은 마치 방향이나 목표 없이 온 산을 살살이 뒤져 보물을 찾게 하는 것과 같다.

셋째, 독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독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 지식이다. 그리고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 지식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어휘이다. 그런데 현행 국어 교과서는 어휘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 말은, 국민 학교 저학년 교과서 편찬에서와 같이 글에 나오는 어휘의 수, 종류, 난이도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국민 학교 상급 학년 이상의 교재에서 어휘를 통제하게 되면, 이는 자칫 글의 정보

전달 기능을 침해하기가 쉽고, 어휘 학습의 기회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어휘에 대한 배려는 글을 읽기 전에 그 글의 독해에 편견이 될 만한 중요 어휘를 사전 점검시키고 학습시켜 독해 과정이 단절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네째, 현행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은 설명문이나 문예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 내용도 대부분 권선징악이나 현실 수용의 색조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서 교육의 교재가 인문, 사회, 자연의 여러 영역에 두루 걸쳐 실생활에서 보고 듣는 것은 물론, 환상적인 세계, 창조적인 세계에 대한 글로 폭 넓게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독서 교육 교재는 너무 단조롭고 학생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고취하기에도 미흡하다.

다섯째, 작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서 교육도 주어진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내용 이해, 정보 수용의 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행 국어 교과서가 모범적인 글, 처음과 끝이 완벽한 글, 문제의 제기보다는 해답을 제시하는 글, 학생들의 글보다는 유명한 문필가들의 글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讀書教育의 方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여섯 영역을 포괄하는 한 학기용 국어 교과서가 200여 쪽 미만의 단일본이라는 현행 교과서의 제한점은 독서 교육의 지도 방법을 오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째, 독서 교육은 읽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읽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이 말은 독서 교육의 요체는 다양한 내용, 다양한 종류의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다독 속에서 독서 능력이 신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단원의 종류에 상관 없이 교과서에 실린 모든 글을 여러번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독서 교육을 대신한다. 목록도 거의 없이 낭

독이 주류를 이룬다. 이같은 수업에서는 글 내용의 이해보다는 “바르게 소리내어 읽기”가 학습의 관심이 된다. 그리고 교과서의 전체 쪽수가 적은 관계로 실제 독서 분량은 1주일에 10쪽 내외에 불과하다. 한 번 읽은 글을 두 번 읽기도 지루한데 같은 글을 1주일 내내 읽어야 하는 국어 교육이 얼마나 지루하고 무미전조할까는 쉽게 짐작이 된다.

둘째, 실제로 읽는 분량이 1주일에 10쪽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은 곧 독서 지도를 필연적으로 글의 전체 내용 파악보다는 세부적인 내용 분석으로 흐르게 한다. 교사는 글이 아닌 단어나 문장을 대상으로 강의식 해설을 하고, 칠판에 그 내용을 적어 준다. 학생들은 스스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읽은 글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확대 발산적 사고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학습에 머무르게 된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국어과 학습 참고서의 내용들이 낱말의 뜻, 바르게 읽기, 준말, 본디말, 비슷한 말, 반대말, 구절풀이 등 단어나 문장 수준의 분석과 해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어 교육 또는 독서 교육이 얼마나 그 본래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도, 이러한 참고서는 산을 조망하여야 할 학생들을 산속에 집어 넣어 나무만을 더듬게 한다. 달리 말하면 학생들의 사고의 시야를 넓혀 주어야 할 독서 교육이 오히려 그 시야를 좁혀 주거나 또는 차단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국민 학교에서부터 고등 학교에 이르기까지 독서 교육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는 교육 내용은 글을 문단으로 나누는 문단 나누기이다. 독서 교육에서 문단 나누기가 그토록 중요시되는 나라는 아마 우리 나라와 일본뿐일 것이다. 서구의 여러 나라 독서 교육에서는 문단 나누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문단 나누기 연습은 우선 그 활동의 내용 자체가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통합적이라기보다는 분석적이며, 사고 과정은 발산적이지 아닌 수렴적 양상을 띤다. 그리고 문단의 구분은 주어진 글에 담긴 내용에 국한될 뿐이다. 여기에는 독자의 반응이나 새로운 정보의 첨가가 개입될 수 없다. 학생들이 스스로 글을 분석하면서 그 구성을 문단으로 나누

는 실제적인 연습을 하지 않고 참고서에서 보고 베낀다는 점도 독서 교육에서 하는 문단 나누기 연습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문제점이다. 문단 나누기 연습은 그 연습이 갖는 구조적, 기능적, 실제적 특성으로 보아 마땅히 쓰기 지도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현행 국어 교육에서 독서 교육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적인 독서 지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글을 읽으라고 지시하고, 글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고, 중요한 낱말이나 구절 또는 문단 나누기를 숙제로 내주고, 숙제 검사하고, 수시로 시험을 보아 학습 결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모든 일은 지시, 검사, 평가는 될지언정 실제적인 독서 지도는 되지 못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읽고 있으며, 어떻게 읽어야 하며, 어떻게 지도하면 학생들이 보다 잘 읽을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관심도 적고 지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 단적인 한 예가 글에 알맞은 제목 정하기 연습(글에 알맞은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때로는 필자의 의도까지 간파하여야 한다)이 독서 교육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改善을 위한 提言

독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다. 독서는 글자의 지각, 확인, 어휘 파악, 문장 이해 등 여러 하위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독서 그 자체는 여러 부분들의 연주가 모여 오케스트라를 이루듯 이들 여러 하위 기능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원만히 이루어진다. 같은 악보라도 그 음악은 연주자의 악보 해석 능력과 연주 능력에 따라 달라지듯 독서 또한 주어진 글에 대한 독자의 해석 능력에 따라 그 독해가 달라진다. 독서는 또한 음악 연주와도 같이 장기간의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독서를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대비시키는 것은 독서 교육이 음악에서의 연주 연습과

비슷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독서 교육의 방향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본다.

첫째, 독서 지도의 목표가 분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독서 교육이 국어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른 언어 기능 교육(예 ; 말하기) 그리고 문법 및 문학 교육과 혼동되어 왔으나 단위별 또는 차시 수업별로 목표가 분명한 독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독서 교육의 내용과 자료, 방법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한다.

둘째, 독서 교육은 문자 읽기에서 벗어나 글 읽기로 되어야 하며, 글 내용의 분석보다는 통합, 그리고 독자로서의 학생들의 비판과 창의가 글 내용에 추가될 수 있는 확대 발산적 형태로 지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의 많은 글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 독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읽은 글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는 개별적인 기능의 지도보다는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비록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더라도 책을 읽었다고 스스로 책방을 찾아가 자기 취미에 맞는 책을 구입하였다면 독서 교육은 일단 성공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독서는 평생의 반려자이며 삶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

